

완도군, 해양바이오산업 조성사업 순항

해조류바이오 활성소재 생산시설 구축 3년 간 250억 투입

완도산 해조류 활용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선형연구도

완도군은 전국 최대 해조류 생산량을 기반으로 한 해양바이오 사업화 계획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면서 해양바이오산업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먼저 내년 신규 국비 지원 사업으로 '해조류 바이오 활성소재 생산시설 구축' 사업이 반영되어 3년간 총 250억 원이 투입된다.

본 사업은 완도에서 생산된 다양한 해조류에서 기능성 물질을 추출해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 기능성 화장품 생산 등을 위한 원료 소재 공급 체계 구축 사업이다.

이 시설이 구축되면 단순 가공 산업에 머물러 있는 해조류산업이 바이오산업 소재 활용으로 해조류의 고부가가치화와 지역 내 다양한 해양

바이오 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군은 프랑스 로스코프 해양생물연구소와 해조류를 활용한 해양바이오 분야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인 '유레카(EUREKA)'를 공동 추진하여 해외 우수 해양바이오 기술진여 해외 우수 해양바이오 기술 확보로 해양바이오 산업화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레카' 프로그램은 유럽 R&D 플랫폼에 가입된 회원국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해당 플랫폼에서 승인한 과제를 대상으로 자국 기관에서 연구 자금을 지원하는 국제 공동 연구 개발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10월에는 로스코프 해양생물연구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의 공동 참여와 해양바이오 관련 연구기술 및 기

업 교류에 협력한 바 있다.

앞으로 완도산 톨 추출물을 활용한 치매 예방 상용화 연구와 치매 예방 의약품 개발 및 갈조류 기반 천연물 동물 사료를 개발할 계획이다.

공동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공주대학교 김광훈 교수는 "유럽에서 진행된 연구에서 치매에 대한 톨의 효능이 동물실험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증되었다."며 "톨의 기능성 성분을 활용해 치매 예방과 초기 환자의 발병 지연을 위한 식이보충제와 식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군은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해양바이오연구소와 협력해 해조류에서 추출한 후코이딘이 코로나 바이러스 억제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논문을 바탕으로 완도산 해조

류를 활용해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을 위한 선행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해양바이오 연구단지 조성을 위해 110억 원을 투자해 국내·외 기업연구소 10개와 스타트업 30개소를 유치하고, 다양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해양바이오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해조류 바이오 기능성 소재의 산업화 촉진을 위해 조선대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와 협력해 해조류바이오 유효성 평가 실증 지원센터를 150억 원을 투입하여 구축할 계획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해양바이오 산업의 성공적 추진으로 해조류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어민 소득 증대와 해양바이오 기업 육성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며 "지자체 소멸 위기에 대응해 우리나라 여존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모델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완도=김광수기자



완도군, 해조류바이오 활성소재 생산시설 구축(조감도)



진도군, 호흡기 전담 클리닉센터 운영

코로나19 유입 및 확산 차단에 총력 대응

진도군이 코로나19 장기화와 겨울철 호흡기 질환 동시 유행에 대비해 진도군 보건소에 '호흡기 전담 클리닉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지난해 12월 31일 밝혔다.

보건소 호흡기 전담 클리닉센터는 감염 차단을 위해 진료실은 물론 검체채취실(워크루), 엑스레이실 등 전 시설에 감염 방지를 위한 음압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또 냉·난방기 산소 포화도 측정기, 산소발생기, 자동혈압기, 자동심장충격기(자동제세동기) 등 장비도 구비되어 있다.

특히 코로나19와 증상 구분이 어려

운 발열·호흡기증상 환자와 의료진의 안심 진료 가능성이 가능하며, 코로나19 증상 의심 시 신속하게 코로나19 검사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환자 간 교차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화(☎061-540-1249)상담을 통한 사전 예약제도로 운영된다.

진도군 보건소 관계자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센터 운영으로 호흡기 발열환자의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기자

강진종합운동장, K리그 그라운드

공인 인증 취득 완료...전국 6번째

강진군은 지난해 12월 29일 강진종합운동장에서 K리그 그라운드 공인 인증 현판식을 가졌다.

군민의 건전한 여가생활 및 건강한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이날 현판식에는 이승욱 강진군수, 노치경 강진군체육회장, 김명남 강진스포츠클럽 회장, 차재훈 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 오명일 대한축구협회 과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승욱 군수는 "종합운동장에서 많은 군민들이 자유롭게 운동 할 수 있고 선수들이 최고의 실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부상 방지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군민 체육복지 증진 및 스포츠 마케팅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동계전지훈련, 각종 대회 유치 등 스포츠 마케팅을 위해서는 안전한 시설 확충이 우선돼야 한다. K리그 그라운드 공인 인증은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타 지역과 차별화된 공공체육시설의 확충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치경 강진체육회장은 "광주·전남 최초, 전국 6번째로 K리그 그라운드 공인 인증받은 것에 대해 뜻깊게 생각한다. 스포츠 메카다운 좋은 시설이 있으니 군민 생활체육 활성화와 동·하계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등 선수단 유치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군은 지난해 3월부터 5월 까지 3개월간 국민체육진흥기금 공모 사업을 통해 확보한 국비 2억 원 포함 6억6천7백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노후 인조잔디 교체사업을 추진했다. 이후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서류심사와 품질테스트, 현장실사 등의 인증 절차를 거쳐 지난 12월 4일에 매우 우수한 등급인 K-GT1이 부여됐다.

K리그 그라운드 공인제도는 프로축구 경기와 높은 수준의 아마추어 축구 경기에 적합한 인조잔디를 설치한 그라운드에 대해서 품질테스트 17개 항목, 그라운드 타 지역과 차별화된 공공체육시설의 확충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기자

해남군, 100억원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 선정

해남군이 정부 그린뉴딜 과제인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100억원을 확보했다.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은 그린뉴딜 과제 중 '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을 위한 대표 사업으로 자원 순환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역맞춤형 환경개선 사업이다.

기후·환경 문제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기후, 물, 대기, 자원순환 등 다양한 환경 분야 사업들을 융·복합하게 된다.

전남 11개 시군을 비롯해 전국 100곳의 지자체가 공모에 참가, 치열한

경합 끝에 해남을 포함해 총 25개소가 선정됐다.

해남군은 2021년부터 2년간 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해 자원순환, 환경교육, 생활안전 등 다양한 환경 분야를 결합한 '똥똥한 자원순환마을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해남읍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읍 시가지 마을에 재활용 교환센터와 자원순환 입체체험장, 재활용 동네은행을 설치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지역에 대한 공동터발과 미니화단 조성, 스마트 CCTV를 설치한다.

기동취재본부

장흥군, 2021년 공모사업 첫 쾌거

환경부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 100억 원 최종 확정

장흥군은 기후 대응 및 환경 개선을 위해 최근 환경부가 공모한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전국 100곳의 지자체가 신청하여 최종 25개소가 선정된 이번 공모에서 평균 경쟁률 4대1을 뚫고 총 사업비 100억 원을 확보하였다.

군은 '4(four)메카'에 이어 최근 수열그린도시,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노인공경도시를 내용으로 한 '4(four)시티'의 선포를 통해 수열에너

지 도입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또한 이번 사업 선정을 통해 수열실증도시구축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물, 또 다른 혜택 장흥형 스마트 그린도시'는 장흥댐, 탐진강의 풍부한 수자원을 활용하여 수열에너지를 도입하는 지역맞춤형 환경 개선 사업으로, 공공주도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사용량 절감 등을 목표로 한다.

장흥=김도영기자

책과 함께 즐거로운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세요.





